

△ 2001년도 표어 △

주님의 재자로  
살아가자

# 순복음 Life

## 제6호

발행일 2001년 5월 31일

발행인 : 한승권

위원장 : 김미진

편집처 : 문서발간위원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중앙교회 ☎ 343-800 충남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162-1

<http://www.djfgcc.pe.kr> ✉ [hagape@netsgo.com](mailto:hagape@netsgo.com)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 <5월의 기도>

## 기도와 간구

권사 최순환

이 하루를  
기도로 살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본받아  
높고자 하는 마음 낮아지게 하시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들의 생활하는 모든 모습들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며  
언제나  
섬기는 종의 모습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 생명의 양식

제목 : 든든히 서 가는 교회

성경 : 행 8:31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요, 성장을 사명으로 해야 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는 부흥을 기대하며 창립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존속되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세워지며 그 생명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과연 든든히 서 가는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으며 어떤 교회인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받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진 자들로 형성되어 가는 교회입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종교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을 통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든든히 서 가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당시의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은 말씀과 체험 위에 자신의 신앙을 구축하였습니다.

2.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신앙인이 있는 교회입니다.

나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언제든지 주님을 우선으로 하는 신앙이 살아있을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집니다. 교회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동참하고 협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3. 화평케 하는 자가 일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이어야 하며, 많은 지체들이 모여진 영적 공동체입니다. 엡 4:16에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하나를 이루어 간다” 하였습니다.

마 5:9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셨습니다. 화평은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교회 일을 하다보면 서로 상반되는 일도 있고, 우선순위를 논하다가 감정적인 대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허무는 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4. 거룩 신앙을 최고의 생명가치로 아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 영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거룩을 생명으로 여기는 종교입니다.

작금에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옛적에는 세상이 교회를 닮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속이 들어왔고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5. 다양한 일꾼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몇몇의 일꾼만이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몇 교회들은 셀목회다, 팀목회다 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장점은 다수의 일꾼과 다양한 일꾼입니다. 다양한 일꾼은 보다 더 많은 정보와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확장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6. 교회 본질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성도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전도입니다. 결혼한 여인은 자녀를 낳을 때 건강할 수 있습니다. 교회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성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있다는 것은 교회가 건강하다는 반증입니다. 새로 입교한 성도가 있을 때 교회는 생동감이 넘치게 되고 이로써 든든히 서 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7. 성령충만함이 눈에 보여지는 교회입니다.

이 시대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령으로 충만(엡 5:18)해야 영적으로 살 수 있으며, 교회가 든든히 서 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며, 성장시켜 나갑니다.

교회 여기 저기에 성령충만한 역사가 보이며,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역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8. 마지막으로, 교육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육은 생명입니다. 목숨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가치를 지니고 살 수 있는 배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교육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교육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엄청나게 폭발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든든히 서 가는 교회는 훌륭한 일꾼이 많은 교회입니다. 목사님을 보필하여 온 성도가 하나되게 땀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베풀며 좋은 프로그램도 활용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주부들의 요통은 대부분 가사노동을 하는 엉거주춤한 자세 때문에 생긴다. 일상적인 동작이나 자세를 체크, 주의를 기울이기만 해도 상당한 요통 예방의 효과가 있다.

가정주부들은 대개 육아나 가사노동을 하느라 하루종일 바쁘게 움직인다. 그런데 청소나 세탁, 다림질과 같은 가사노동은 대부분 엉거주춤한 자세로 하기 때문에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

다림질을 할 경우 될 수 있으면 다림질 대 같은 것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리대에서 작업을 할 때는 그 높이가 문제인데 자세가 앞으로 구부러지지 않는 높이가 되도록 조리대의 키 높이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적당한 허리굽이를 유지할 수 있는 높이여야 피로가 덜하며 그런 자세가 좋은 자세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리대가 개발되었는데 조리대 앞에 섰을 때 조리대가 팔꿈치 보다 약간 낮은 것이 이상적이다.

또 청소나 세탁 등 대수롭지 않은 동작도 주의해야 한다. 마루를 청소하고, 이부자리를 개고, 마당의 풀을 뽑는 등의 동작은 될 수 있는 대로 무릎을 꿇은 자세로 행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허리굽이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통증이 완화되며, 요통도 예방할 수가 있다.

세탁할 때에는 세탁기에서 세탁물을 꺼낼 때의 자세에 신경 쓰도록 하자. 이때는 아무래도 전굴 자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그마한 발판을 놓고 한쪽 다리를 그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허리가 펴진 상태에서 세탁물을 넣거나 꺼내도록 해야 한다

역시 냉장고에 물건을 넣거나 꺼낼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냉장고에 음식물을 넣거나 꺼낼 때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한 허리 통증 예방을 위해서는 자주 사용하는 음식물은 될 수 있는 대로 위쪽에 넣어두는 생활의 지혜가 요구된다. 또 아래쪽 음식물을 꺼낼 때에도 주저앉아 무릎을 꿇은 자세로 음식물을 넣거나 꺼내면 요통을 예방할 수 있다.

장롱이나 선반 위처럼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에는 반드시 발판을 사용해서 꺼내도록 한다. 발끝으로 간신히 버티고 선 채 무심결에 두 손을 뻗으면 요통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부들이 가사 일로 인한 요통예방을 위해서는 등이 둥글게 뭉쳐지지 않도록 하고, 언제나 체중이 두 발에 똑같이 실리는 자세가 되도록 신경 쓰는 한편 될 수 있으면 엉거주춤한 자세를 피하도록 한다.

또 가정주부들은 하루의 운동량과 매일 쓰는 근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하루 한차례씩 온몸을 움직이는 체조를 하거나 수영, 걷기 운동 등을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요통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

## 생활속의 지혜

### 1. 눈가에 잔주름 예방하는 법

눈가에 잔주름이 생기는 원인은 수분이 부족한 탓이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려면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주어야 하는데 눈 주위의 뼈 부분을 손가락으로 누르듯이 마사지를 한 다음 유연 화장수를 화장솜에 충분히 묻혀 눈가에 올려 놓으면 효과가 있다.

### 2. 너무 피곤해서 잠 못들 때

보통 건강한 사람들의 피는 약한 알칼리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영양분이 연소되고 남은 찌꺼기인 유산이 피 속에 엉겨붙게 된다. 이 지꺼기 유산은 몸 밖으로 배출되는 데 가능한 양 외엔 몸 안에 남게 되고 그로 인해서 피까지 산성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식초를 한 손가락 떠서 마시면 제대로 연소되지 않아서 생겨난 찌꺼기를 태우게 해 피로를 해결할 수 있다.

## 추천하는 신앙서적

제목 : 전도 프리칭

저 자 : 옥한흠 목사

가격 : 11,000원

출판사 : 규장문화사



이 책 「전도 프리칭」의 저자 사랑의 교회 옥한흠 목사는 30년 역사를 가진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의 성공 이유를 "깜짝 세일식 전도가 아니라 책임있는 양육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전도활동, 즉 6개월 동안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뤄지는 대각성 전도집회"를 통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은 복음설교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옥한흠 목사의 그동안의 전도집회 설교 중 주옥같은 13편의 설교를 추려 묶었으며, '옥한흠식 전도설교'라 할 수 있는 전도설교의 모범이 되는 특징들을 분석, 비교하기 쉽게 편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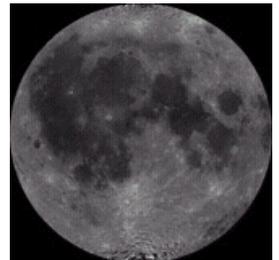
불신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끈끈한 접착점 만들기에서부터 쉽고 적절한 비유와 예화를 동원한 복음제시, 강한 인상과 진한 여운을 남겨 마음에 도전을 주는 결단의 요청에 이르기까지 마치 '복음설교는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는 듯한 짜임새 있는 설교 모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철저히 불신자들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며, 동시에 철저히 복음주의 편에서 증거하는 절절한 복음 원액의 메시지가 감동과 도전을 준다.

구태의연한 전도설교에서 이제는 더욱 새롭고 능력있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붙들고 강하게 흔들어놓을 수 있는 전도설교를 하기 원하는 목회자들과 신학생들, 그리고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을 전도하고 싶은 심령을 가진 분들에게 권하고 싶다.

## 성경과학

- 달 -

히브리인들은 일 년 중 달수를 계산할 때 28일 주기의 음력을 사용했다. 성경에서 신월(new moon)이란 말은 대부분 그 달의 제 1일을 의미했다. 따라서 "신월마다"라는 말은 "매달"이란 뜻이다. 신명기 33장 14절 말씀은 달이 식물을 자라게 한다는 히브리인의 미신적인 신앙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주의 깊게 분석해 보면 그것은 매달의 수확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한글판 개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 중 KJV에는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으나, 영어 성경 NASB, ASV에는 "매달 정선된 농산물"로 번역되어 있다/역자 주). 실제로 이 구절은 매달 수확하는 과일과 채소의 풍성한 축복을 말하는 것으로 미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달빛은 낙타를 몰고 다니는 대상(隊商)들이 밤에 여행하는 데 극히 중요했다. 현재까지도 베두인(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아라비아 유목민/역자 주)들은 달을 중요시하여 그들이 사용하는 낙타 용구도 초생달 모양으로 만든다. 서늘한 밤에 여행하기 위해서 달빛이 필수적이다. 베두인들은 뜨거운 태양을 피해 밤에 여행했다.

"낮의 해가 너를 상(傷)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害)치 아니하리로다"(시편 121편 6절)는 말씀은 밤이나 낮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를 말하고 있다.

예레미야 31장 35절의 "달의 규례"는 달의 위상을 말하는 것이다. 달은 궤도를 돌면서 계속적으로 그 위상을 나타내는 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비유할 수 있다. 시편 104편 19~23절에서 달로 절기를 정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태음력을 가리키는 것이다. 히브리인들은 일년을 태음력의 열두 달로 정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 위에 열 두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식물을 예비하되 각기 일년에 한 달씩 식물을 예비하였으니" (열왕기상 4장 7절).

# 성경인물 : 요셉

## 개요

요셉은 그의 인생 여정이, 고난 이후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역임하였다. 그의 이름 <יֹסֵף ; 요세프>는 '여호와께서 더하신다' 혹은 '여호와여 번성케 하소서' 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잉태하지 못했던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 간구하면서 붙인 이름이다.

## 1. 시대와 성장 배경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며 아끼던 라헬의 장남으로서 하란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셈이다. 야곱은 라헬을 끔찍히 사랑한 만큼 그의 아들인 요셉에게도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다. 그래서 요셉은 어려서부터 채색 옷을 입는 등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으나 형들로부터는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요셉이 활동하던 시대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학설이 있다. 첫째는 애굽의 12왕조(B. C. 1991-1786년) 때라는 것과 둘이 두 가지 학설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에 어느 한 가지를 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 2. 야곱의 생애

요셉의 생애는 수많은 고난의

연속이었으나 그래도 요셉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위대한 삶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였고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꿈으로 인하여 형들로부터 미움을 사서 결국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 사람 보디발의 종이 되었다. 그곳에서 요셉은 형들로 인한 마음의 깊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열

심히 일을 하여 보디발 집에서 제일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하지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다. 그런데 옥에서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굶는 자의 꿈을 해몽한 것이 인연이 되어 요셉은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그 후 요셉은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온 가족들과 상봉을 하게 되고, 온 식구들을 고센으로 불러서 그 곳에 정착토록 하였다. 결국 요셉은 11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 3. 야곱의 성품과 신앙

요셉은 일평생 하나님만 믿는 믿음 안에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셉과 늘 동행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다. 요셉은 인격적

으로도 경건하였다. 부모에게는 절대적인 순종을 하였고, 13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무던히 지낼 만큼 성실성과 인내심이 강했다. 또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만큼 도덕적으로 건전하였고 용기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매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현명하게 처신하여 애굽을 잘 다스렸으며, 아울러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넓은 마음도 간직하고 있었다. 요셉은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만큼 고난의 연속이었으나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었기에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드물게도 요셉은 실수나 허물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신앙을 일평생 동안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듯이(참조, 빌 2:8-9) 요셉을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다.



**거부권(拒否權 Veto)** - 클린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법안에 부속돼있는 1천 230억 달러의 감세안이 "불공평하게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의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 국가원수가 동의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법률 성립을 결정적 또는 잠정적으로 저지하는 권한. 미국 대통령이 갖는 거부권이 대표적인 예다.

우리나라에서는 88년 7월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국정조사법과 국회중언감정법에 대해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국제법에서 말하는 거부권은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가지는 특권적 표결권(表決權)을 가리킨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절차사항을 제외하고는 5개 상임이사국 전부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데 상임이사국 중 1개국이라도 반대투표를 하면 결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 편지

초등부 희락반(5학년) 강신모

날마다 얼굴 대하는 엄마 아빠께  
편지를 쓰려고 하니 왠지 쑥스럽고 이상하네요.  
그래도 이 편지를 받으시고 흐뭇하게 웃음 지으실  
엄마 아빠를 생각하며 신모는 용기를 내어  
기쁜 마음으로 적어 내려갑니다.  
솔직히 저두요....  
언제나 엄마 아빠께 효도하는 아들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의 걱정하시는 얼굴을 볼 때마다  
좋은 아들이 되겠다고 다짐을 하곤 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친구들과 놀다보면 다 까맣게 잊어 버려요.  
그리고 다시 내 맘대로가 되어 버려요.  
죄송해요.  
엄마! 아빠!  
이제네요..정말로 엄마 아빠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보겠다고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다시 다짐해 봅니다.  
그리구요...신모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만난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세요.  
이렇게 좋은 분을 우리 부모님도 함께 믿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과 함께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부럽거든요.  
엄마 아빠....  
건강하십시오. 오래 오래 사세요. 그리고 사랑해요..

## 일기

2001년 5월 7일 월요일 흐림 유년부 양선반(2학년) 나빈휘

동생 희영이와 희영이 친구 병연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다.  
놀이터에는 우리 아파트에 사는 꼬마가 있었다. 꼬마를 보니  
그 아이의 누나가 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누나를 데리고 와  
달라고 했다. 그런데 꼬마가 갑자기 주먹을 쥐고 나를 때리는  
것이였다. 발로 모래와 흙을 내게 차기도 했다. 나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했다. 그리고 분했다. 하지만 참았다. 그리고 이제부터  
누구 때문에 화가 나더라도 참기로 다짐했다. 오늘처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꼬마아이가 착한 아이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도 했다.

제가 이 글을 쓰기까지는 오직 나의 하나님 은혜가 있었기에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저를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한승권 목사님, 이영주 사모님, 윤희자 전도사님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위로와 사랑이 있었기에 이 글을 쓸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순복음중앙교회에 다니는 김 종숙 권사입니다. 저는 부모님(김경호 권찰님)과 4남매의 어머니로서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진 것 없고 병들고 내 놓을 거라곤 아무 것도 없는 저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주님을 영접케 하시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지요. 그 구원에 선물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15년 동안이나 고통 속에서 병마와 싸워왔던 전신류마티스관절염까지 치료해 주셔서 저는 새로운 제2의 인생을 나의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며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은혜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었기에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환경을 신앙으로 극복하며 살아가는 삶이란 맛보지 못한 자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앞에 어떤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찾아보곤 합니다. 그럴 때 나의 하나님은 저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에 순종 할 때 간구 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나 나타나고 그러한 체험이 있기에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세상에서 어떤 값진 것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과 기쁨과 소망과 평안과 모든 것이 다 들어 있기에 하나님과 남편 중 하나만을 택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생사화복이 있기에 저는 그 하나님만 있으면

이 우주 만물이 다 제 것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고 저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저에게 무엇이 걱정이 되겠으며 무엇이 염려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인내를 가지고 천국의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그때가 오기까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제가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전신류마티스가 오기 시작하여 15년 동안이나 그 병마와 싸워야 했고 그런 가운데 남편은 집을 버리고 자유로운 몸이 되었고, 어린 자녀 4남매와 저는 시집에서의 냉대로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친정부모님과 형제들의 보살핌이 있었기에 저는 살아 갈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보살피 주던 형제 중에서도 냉대와 핍박이 쏟아지기도 했지만 눈물을 삼키며 참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이란 가만히 있으면 통증이 없는데 조금만 움직이면 그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심합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해도 아파서 울어야 하는.....진정 저에 삶은 울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럴 때 저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엄마의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 손과 발이 되어주었지요. 때로는 짜증도 났을 테고 때 쓰고 싶었으련만 환경에 눌러 어리광, 응석 한번 제대로 부려 보지 못하고 사춘기 없이 자라났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볼 때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또한 착한 자녀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곤 합니다. 제게 딸을 많이 주신 것은 제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줄 미리 아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임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착하기만 하던 아들 창용이와 둘째 딸 정은이가 제가 많이 회복 된 언젠가부터 충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창용이는 다른 애들 같지 않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제 속을 엄청 썩였어요.

등록금 2분기 3분기 다 쓰고 다니고 또 거짓말해서 없는 돈 타다가 쓰고 이웃 형들이 심부름을 시키면 그것까지 다 갖다 쓰곤 했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울부짖는 기도.....시간 있을 때마다 매달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하나님은 저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 주셔서 창용이가 점점 변화되어 교회에도 잘 다니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으며 그 뒤로는 엄마 마음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린것이 아빠의 몫까지 다 해내려고 참 많이도 애써더군요. 창용이가 마음을 잡고 변화된 삶을 살자 이번에는 정은이가 속을 썩였습니다. 제가 부모님 말씀 어기고 정말 많이 고생시켜 드리고 마음 상하게 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보응 이었는가 봅니다. 그걸 깨닫고 부모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모님 마음 아프게 했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인내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아버지가 존경스러워 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창용이와 정은이는 기도로 변화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예진이와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은 열심히 못하지만 신앙생활도 하면서 맡겨진 일에 충실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로서 세상 부모들처럼 아무 것도 해 준 것이 없지만 그래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희를 위해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그들의 앞날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에게 아이들은 불만도 많답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 다만 조금이라도 저희들에게 관심 보여 달라고 항의 아닌 항의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들에게 물질적으로 해 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으로 권면 해주고 관심과 인내와 사랑으로 믿어주고 기도로 지원하는 것뿐입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그런 어머니를 이해해 주며 열심히 신앙 생활 하는 제게 '존경스럽다'는 말을 하곤 하지요. 자기네

들도 엄마처럼 열심히 살 것이라고 격려도 해 줍니다. 가진 것 없고 많이 배우지도 않았지만 남의 어느 자녀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든든한 효자 효녀입니다.

속썩인 자녀가 효도한다는 말 저를 두고 한 말 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 속 많이 썩여 드린 제가 돈주고 살 수 없는 효도를 했습니다. 엄마는 기도로 구원받고 천국 가셨고, 아버지는 지금 순복음중앙교회의 권찰님으로 열심히 신앙 생활 하시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그리고 저의 자녀 4남매가 푹푹 뭉쳐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마음 아파하며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부모에게 더 큰 기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창용이에게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될 줄 믿고 기도를 통하여 직장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어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우리 정은이 3년에 걸쳐 검정고시 합격하고 지금은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를 가지고 기다린 믿음에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은 모든 방향을 끝내고 엄마한테 많은 위로와 사랑을 주며 어떤 자녀들보다 더 효도하며 살겠노라고 고백도 합니다.

부모 마음에 근심이 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웁박지르고 간섭하기보다는 묵묵히 주님께 맡기고 지속적인 기도와 인내를 가지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바라보며 기다리면 아이들은 깨닫고 돌아와서 전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 줄 것입니다. 아무 염려 마시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좋은 결과 있을 줄 믿습니다.

저의 자녀들에 대한 기도 말씀은 "네 처음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 하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에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 좋은 아버지가 되는 12가지 방법



1. 자녀와 여행하는 아버지가 되자 -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만들자면 좋은 추억이 있어야 한다. 자녀와 늘 좋은 관계만을 만들 수는 없다. 갈등이 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만들어 두자. 여행, 바둑, 등산, 요리, 운동 등을 같이 하는 등 특별한 시간을 만들자.
2. 자녀를 칭찬해 주는 아버지가 되자 - 자녀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도록 하자. 단점은 한번이라도 눈에 보이기 쉽다. 장점을 인정해 주고 격려해 준다면 단점은 언젠가 없어질 것이다.
3. 자녀가 가정의 따뜻함을 느끼게 하자 - 가정은 자녀의 보금자리이다. 자녀뿐만 아니라 가족구성 모두가 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돌아오거나 외출해서 돌아올 때 반갑게 맞아 주자. 인사만 받는 아버지가 되지 말자.
4. 자녀와 함께 서점에 가보자 - 책 속에 모든 길이 있다는 말이 있다. 자녀와 손잡고 서점에 가보자. 자녀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어떤 성향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 책 선물은 가장 좋은 선물이다.
5. 자녀의 학교에 가보자 - 아버지들이 한 학기에 한번이라도 자녀가 공부하는 교실을 찾아가 보자. 그리고 선생님과 자녀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 보자.
6. 가족에게 편지를 써 보자 - 좋은 아버지가 되자면 아내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가끔 아내에게는 감사의 편지를, 자녀들에게는 사랑의 편지를 써보자. 백 마디 말보다 한 줄의 글이 효과적 일 때가 있다.
7. 부모님의 고향을 자녀와 함께 찾아보자 - 효와 도덕은 우리사회를 지금까지 지켜준 아름다운 덕목이다. 자녀의 손을 잡고 멀리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고향도 찾아가 보자.
8. 일주일에 한번은 가족의 날로 정하자 - 바쁜 생활중이라도 일주일에 한번은 가족과 저녁식사를 포함한 시간을 가지자.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고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9. 아버지는 자녀가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는데 조력자임을 명심하자 - 가능하면 간섭하지 말자. 작은 결정이라도 스스로 결정하게 해 보고 믿어주자. 그리고 그들이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한다면 그들은 혼자서도 잘 자라날 것이다.
10. 아버지도 감정을 가진 인간임을 보여주자 - 아버지는 강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매이지 말자. 아버지도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웃을 수 있는 인간임을 보이자. 가족들의 따뜻한 지지와 격려가 필요한 존재가 아버지이다.
11. 교통신호를 지키는 아버지가 되자 -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은 세계수위이고 교통사고 원인으로 깨지는 가정의 적지 않다. 교통신호를 밥먹듯이 어기는 아버지, 불의와 타협하는 아버지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원칙과 질서를 지켜보자. 마음만 먹으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12. 약속을 지키는 아버지가 되자 - 우리는 가족과의 약속, 사회와의 약속, 아버지 자신과의 약속 등, 약속 속에서 살고 있다. 사회를 타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면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될 것이다.

제공 :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줄사모)



# 사탄의 새로운 옷, 뉴-에이지운동

(NEW DRESS OF SATAN, NEW-AGE MOVEMENT)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엡2:2)

## 3. 뉴에이지운동의 배경과 목적

뉴에이지운동은 1875년 '헬레나 페트로바 블라바츠키(Helena Petrova Blavatsky)'라는 러시아 출신의 여성이 미국에서 여러 영매주의자들과 함께 신지학(神知學- 또는 접신학)협회를 창설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신지(神知)란 신(神)을 아는 지식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지식이 아닌 '영계(靈界) 즉 귀신(鬼神)의 세계를 아는 지식'을 말한다.

그녀는 귀신을 받아 영매(靈媒)와 접신(接神)을 즐겼으며, 또한 프리섹스주의자이다. 그러면서 그녀는 "하나님은 모든 종교 안에서 똑같이 발견될 수 있으며 모든 종교는 서로간의 다른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진리를 갖고있다"고 발표하고 모든 종교의 통합을 외쳤다.

이 협회의 3대 회장인 영국 출신의 여성 '앨리스 베리(Alice Bailey)'는 사탄의 지시로 이 종교통합의 실질적인 기초와 운동의 이론을 체계화하여 은밀히 준비해 오다가 드디어 1975년 마릴린 퍼거슨(Marilyn Ferguson)이 그녀의 책 '물병자리 음모'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전 세계에 공개하게 되었다.

뉴에이지운동은 인류의 인간성 회복과 참된 평화, 참된 행복이 실현되는 새로운 시대를 이룩하려는 범 세계적인 종교운동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신세계질서(New World Order), 신세계주의(New Globalism), 신세대(New Age), 물병좌시대, 어퀘리언(의식)혁명, 새정신(New Mind), 새의식, 신사고(新思考), 신 초월주의, 마인드 컨트롤 등과 같이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에 깊이 파고들고 있다.

여기에 이 운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6단계 활동내용을 소개한다.

- 1단계: 평화, 핵군축, 환경보존운동, 여권신장운동, 노동운동, 낙태 및 동성애 옹호운동
- 2단계: 낙관적인 휴머니즘(인본주의), 지상낙원, 무신론적 과학주의
- 3단계: 건강 및 정신운동, 심령술(이완요법, 식이요법, 마인드 컨트롤, 적극적 사고방식, 최면술, 초능력, 명상, 요가, 기(氣), 접신 등)
- 4단계: 서적출판 및 보급(심령과학, 공상과학 및 UFO서적)
- 5단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종교 등 전 분야에서의 영향력 행사
- 6단계: '단일세계경제' 체제 확립으로 '단일세계정부'를 탄생 시킨 후, '단일세계종교'라는 종교통합의 목적달성 (CANA Report p.131참조)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뉴에이지 운동의 목적은 '종교 통합'에 있다. 그렇다면 사탄은 왜 '종교 통합'을 그의 마지막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일까? 사탄의 진짜 속셈은 무엇일까?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과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인류사업경륜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의 경배와 찬양을 가로채 자신이 신(神)으로 군림하고자함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는 세계 종교의 통합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세계의 단일정부와 단일 경제체제가 필요해 진 것이다.

<영일만 구룡포 다녀와서>



무갯각의 회색으로 퇴색한 공간을 훌훌 털고 벗어나 갈매기가 떼지어 비상하는 그곳에 가면 우리의 희망과 삶과 의지의 욕망이 꿈틀거린다.

연해주를 향해 발톱을 세우고 포효하는 호랑이의 꼬리 끝 호미곶, 짐승의 힘은 꼬리에서 나온다던가! 총명과 힘이 샘솟는 우리 민족기상의 발원지....

장엄한 해돋이와 생선캐짜를 부리는 낚도 사나이의 거침없는 웃음소리...

구룡포 아지매의 역사지킴 정겨운 말투에서 나는 삶의 뜨거운 정열을 느끼고 도시민들의 가증스런 이중 잣대를 깨끗이 잊을 수 있다.

구룡포를 지나 '호미곶' 으로 가는 길.....여기는 푸른 따도와 오른편 옆에서 우리를 못내 바라보고 해안가 언덕의 굽이굽이 길 아래로는 아담한 포구들과 갯돌해안, 금빛해변이 오목조목 이어진다. 이렇게 달리기를 30여분하고 나면 해안의 수면위로 다섯 손가락을 활짝 편 거대한 돌조각물이 솟아오른다. 장기곶 해맞이 광장과 새 세기의 화랑을 기약하는 생생의 손상, 손 조각 앞의 영원의 불 성화대에는 두 세기를 기념하는 불씨 향이 3개 놓여 있다. 지나간 20세기와 다가온 21세기의 첫 해돋이 때 채화해 가져와 보관한 것으로 변산반도 일몰, 호미곶 일출, 남태평양 피지섬의 일출 불씨가 그것이다.

1903년 불을 밝히기 시작한 장기곶 등대와 국내에서 유일한 등대 박물관이 있다. 동해안에서 해맞이하기로 으뜸이다. 구룡포읍 삼정리 해안가 언덕에 위치한 '언덕위의 하얀집' 은 방안에서 창 너머로 떠오르는 해맞이를 할 수 있는 민박집이다.

구룡포 과메기는 배를 따 내장을 빼어내고 자연 해풍에 기름을 제거하며 낮은 기온에서 말린 것으로 미역과 김치에 싸서 먹으면 되고의 일미가 된다. 또 다른 구룡포향의 별미로는 '복탕' 이 있다. 6.25 때 떠난 내려온 함흥 떠난민의 손맛으로 시작된 구룡포 영일수협 건너편의 복골목... 50년 역사의 맛은 허름한 구옥의 정취와 주인의 손때 묻은 맛이 진하게 어우러 나온다. '참복' 은 워낙 귀하기 때문에 밀복과 은복이 주로 나오는데 콩나물만 넣고 소금으로 간한 향이 좋게 끓여 나오는 시원한 맛이 최상의 특미다.

포항제철 견학을 마치고 영일만 해안으로 912번 지방도를 따라 대보면 쪽으로 쪽 가면 장기곶 '등대 박물관' 이 보인다. 강릉서 7번 국도로 호랑이 등을 타고 내려가 정동진, 백양온천, 성류굴을 거쳐 구룡포 31번 국도와 호미곶(912번 지방도)을 여행하는 것도 잊지 못할 추억거리다.

성도의 맛사랑

<피자>

☆

국적 : 이탈리아                      주재료 : 밀가루와 모자렐라 치즈

이스트로 부풀린 밀가루 반죽으로 넓고 둥글게 밀면을 깔고, 그 위에 토마토 소스·올리브·안초비·버섯·베이컨·소시지·새우 등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해서 넣고, 맨 위에 모자렐라 치즈 다진 것을 뿌리고 약 200℃의 오븐에서 20~30분 동안 위에 뿌린 치즈가 약간 탄 듯할 때까지 굽는다. 크기는 4명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패밀리 사이즈와 혼자 먹도록 작게 만든 인디비듀얼 포션 사이즈가 있다. 기본 반죽재료는 15g의 생이스트, 설탕 1/4 작은술, 따뜻한 물 1/2 컵, 밀가루 2컵, 소금 1작은술, 올리브유 1작은술의 비율로 반죽하여 부풀린 후 사용하는데, 속에 넣는 재료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이 붙는다.





# 1659 주만 바라볼찌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받게 삼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돕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지  
하나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 나더에게 기울어  
시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주시고  
너의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시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찌라  
라 주만 바라볼찌라

반중음 詞曲



## 사행시

==> 가정의 달 <== 집사 김미진

가..가슴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정..정겨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의..의지 할 곳 없는 지친 사람들의  
달..달려오는 발걸음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 찬양으로 받은 은혜

한성권 목사

목회를 하다보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일이나 가정인 경우, 그리고 교회가 당면한 일과 성도들의 아픔을 보았을 때입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 일' 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도가 당하고 있는 일' 입니다.

작년 이맘 때, 저는 목회의 힘겨움을 안고서 양수리 수양관을 방문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필요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목사의 심장 곁에 있는 고뇌를 알아주지 못하고,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지만 목사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느끼지 못하고 신경도 쓰지 않는 현실이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허탈감마저 가져다 주던 때였습니다.

엘리아가 아합왕의 눈을 피하여 로렘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하던 것같이 저도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성전에 앉아 찬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의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시리라”

두 눈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은 목회의 고뇌에서 나오는 눈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계시구나” 라는 기쁨과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바로 후부터 이 찬양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로 돌아와서는 성도들에게 보급했고 지금까지도 함께 은혜받고 힘이 되는 찬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 할렐루야! ”

\*\*\* 야외예배 \*\*\*

성도 이종희

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  
외..외곽에 있는 축협농원에서 야외예배가 있는 날이에요.  
예..예배도 예배지만, 불고기도 있고..사이다도 있고..  
김밥도 싸왔어요.  
배..배만 불리지 말고 일어나 다 함께 뛰어도 보자구요.

	신앙 유머	성경학자
<p><b>◆ IP주소</b></p> <p>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통신망과 그 통신망에 연결된 컴퓨터에 부여되는 고유의 식별 주소를 의미한다. 이 주소는 내부에서 32비트(4byte)로 기억되지만 표기할 때에는 4개의 10진수를 점(.)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p> <p>IP 주소는 통신망의 크기, 즉 통신망에 연결되는 컴퓨터의 수에 따라 A, B, C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통신망 주소를 나타내는 부분과 그 통신망에 연결되는 컴퓨터의 주소를 나타내는 부분의 비트 수에 따라 구분한다. 즉, A 등급은 7비트의 통신망 주소와 24비트의 컴퓨터 주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컴퓨터가 매우 많이 연결되어 있는 통신망에서 사용한다. B 등급은 14비트의 통신망 주소와 16비트의 컴퓨터 주소로 이루어져 있고, C 등급은 21비트의 통신망 주소와 8비트의 컴퓨터 주소로 이루어져 있어 규모는 적으나 숫자가 많은 통신망들을 관리할 때에 사용한다. 이 이외에도 멀티캐스트를 위해 D 등급을 따로 정의하고 있는데, 전체 32비트의 주소 중 처음 4개의 비트는 1110으로 설정되어 있고 나머지 비트는 멀티캐스트 그룹을 식별하기 위하여 설정하고 있다.</p> <p>IP 주소는 인터넷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할당해 주고 있으나, 사실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나아가서는 아시아태평양 인터넷 정보센터(APNIC)의 협조와 관리 아래서 최종 사용자에게 할당되고 있는 것이다.</p> <p>IP 주소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2진법 표기가 내부에서 기억되는 내용이고, 4종류의 10진수가 사용시 표기하는 내용이며, net-id는 통신망 주소를 의미한다.</p>		<p>독실한 기독교 신자의 딸이 자기의 애인을 인사시키려 집에 데려갔다.</p> <p>저녁 식사 후 그녀의 아버지가 딸의 애인에게 차 한 잔 하자고 하였다.</p> <p>"그래, 자네의 계획은 무엇인가?"</p> <p>"저는 성경학자입니다."</p> <p>"성경학자라고? 훌륭하구먼. 하지만 내 질문의 인지는 내 딸을 좋은 집에서 멋진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이냐는 걸세."</p> <p>"저는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실 겁니다."</p> <p>"... 그럼 어떻게 결혼받으며 내 딸이 원하는 것들을 살 작정인가?"</p> <p>"전 공부에 전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실 거니까요."</p> <p>"그럼 애들은? 애들을 어떻게 키울건가?"</p> <p>"걱정하지 마세요. 어르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실 겁니다."</p> <p>대화가 이렇게 진행되자 아버지는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었다.</p> <p>딸아이의 애인이 돌아가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물었다.</p> <p>"그 청년이 괜찮았어?"</p> <p>"그 녀석은 직업도 없고 장래 희망도 없더라구... 그런데 한가지 괜찮은 건 그 녀석이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더라 말이야"</p>

**흡연자의 궁극증**

**Q>** 고등학교 때부터 피기 시작한 담배를 지금은 하루에 1갑 반에서 2갑 정도 피니다.

한 2년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따끔거리면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건강검진 때 X-Ray를 찍어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정밀검진을 받아야 하는가요?

**A>** 연자가 앞가슴이 아프다고 하면, 협심증(관상동맥질환)과 역행성 식도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끔거리면서 아픈 것이나 아침에 일어나면서 심장에 부담을 주는 운동을 안한 상태에서 통증이 오는 것은 협심증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역행성 식도염은 특히 누워있는 자세에서 증세가 심각해 질 수 있고 흡연을 할 때 하부식도괄약근(식도와 위를 구획 지어주는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서 위산이 역류되어 통증이 오는 것입니다.

**Q>** 담배를 많이 피는 30대 직장인입니다. 하루에 1갑 반에서 2갑은 피우고 술자리에서는 더 많이 피니다.

담배를 피다보면 자꾸 헛구역질이 나고(상당히 자주) 정기검진을 해봐도 별 이상이 없다는군요.

**A>** 답은 간단합니다. 헛구역질의 원인은 흡연이므로 담배를 끊으면 됩니다.

흡연자들이 구역질(오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는 담배가 간에 영향을 주어서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흡연은 오심을 일으킬 정도로 간기능 장애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지나친 흡연이 구역질을 일으키는 원인은

첫째, 순간적인 저산소증 및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 두내압(I.C.P)의 상승에 의한 것으로 이때는 구역질과 함께 어지러움증이 동반됩니다.

둘째, 심한 흡연이 역치를 넘는 자극을 화학적 수용체에 주기 때문에 역한 냄새를 맡으면 구역질을 느끼는 것 같은 현상입니다.

셋째, 흡연에 의하여 만성기관지염 등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와있는 경우 가래를 배출해내기 위해 구역질을 합니다.

전날 밤에 술, 담배가 지나치면 아침에 양치질을 하면서 구역질을 하는데 간손상(급성알콜성간염)에 의한 오심도 있겠으나 잘 배출되지 않는 고점도의 객담을 뱉어내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금연만이 최선책입니다.



흡연은 당신의 건강을 헤치게 합니다

## @#\*! 흡연자 심장병 발생빈도 비흡연자 보다 3배 높아

우리나라에 40대 돌연사가 특히 많은 이유는 흡연 인구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20%에 비해 우리는 70%에 달한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40대에 협심증 및 심근 경색증이 생기는 이유는 실제 나이에 비해 혈관의 나이가 50~60대로 늙어 있기 때문.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이 40~60대에 주로 많이 발생한다.

흡연은 첫째 몸 속의 여러 가지 지방 성분에 나쁜 영향을 준다.

특히 동맥경화증의 원인이 되는 저밀도 저단백 콜레스테(LDL)를 및 중성 지방을 증가시키고 동맥경화증을 억제하는 고밀도 저단백 콜레스테롤치(HDL)를 크게 감소시킨다.

둘째, 흡연 시 혈압을 상승시켜 고혈압이 있는 환자의 경우 약물 치료의 효과를 감소시키며 실제로 담배를 피우는 고혈압 환자의 장기 사망률이 2배 이상 높다.

셋째, 담배를 피우면 혈관 내 혈관 확장 물질의 분비를 억제하고 강한 혈관 수축 물질을 분비시킴으로써 혈관 경련을 초래한다.

이는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는 가슴통증 및 심근경색증을 일으키는 아주 위험한 작용이다.

실제로 흡연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 협심증이나 심근 경색증의 발생 빈도가 3배 이상 높다.

이런 위험 부담은 담배를 끊은 후 적어도 1년이 지나야 벗어날 수 있다.

이밖에 흡연은 폐암, 인후암, 등 여러가지 악성 종양의 원인이 되며 고혈압, 당뇨병 등과 함께 뇌졸중의 중요한 원인이다.

뇌졸중은 아직도 단일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질병으로 사망하지 않더라도 반신불수 등의 증상으로 개인과 가족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적으로도 손해를 끼치는 무서운 병이다.

담배를 끊으면 뇌졸중 발생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심장질환이나 뇌졸중과 같은 매우 위험한 질병의 공통점은 혈관의 노화에 의한 것이며 혈관 노화를 늦추기 위한 첫걸음이 금연이다.

우리나라만큼 명약이나 명의가 많은 나라도 없을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만큼 중년 남성의 60~70%가 담배를 피워 자발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담배 최대 생산국이지만 흡연을 건강을 해치는 '중독'으로 규정해 금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담배판매 시장이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 5월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

한국의 남녀 흡연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골초'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30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5개국을 대상으로 15세 이상 남녀 흡연자의 하루 소비량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남녀 똑같이 24.8개비로 나타났다.

이같은 흡연량으로 한국은 남성의 경우 일본(24.9개비)에 간발의 차이로 뒤져 2위에 올랐으며, 여성은 미국(22.5개비)을 크게 따돌리고 1위를 차지, 남녀 흡연자 모두 하루 흡연량이 과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성 흡연자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 이어 캐나다(24.6개비) 미국(24.3개비) 스위스(22.1개비) 호주(21.3개비) 이스라엘(21개비) 아일랜드(20.9개비) 포르투갈(20.8개비) 등이 1갑 이상을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담배끊는 7가지 방법

'술'은 끊겠는데 '담배'는 끊기 어렵다는 사람을 흔히 보게 된다.

이는 담배로 인한 중독이 알코올 중독보다 더 심하기 때문이다. 담배는 사람이 가장 즐기는 기호품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를 피우는 성인 남자는 전체의 70%에 달한다. 마치 흡연을 성인이 되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의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런 경향이 바뀌고 있다. 많은 사람이 담배를 끊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끊으려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담배를 끊을 수 있을 것인가.

첫째,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담배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해로운 약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담배는 흡연자 자신에게 일종의 약물중독과 같다. 자신의 건강을 파괴하고 경제적 손해를 입힌다. 미국의 학협회에서는 담배를 마약과 같이 불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정도이다. 또한 담배는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오염원이다. 담배를 피우는 남편을 가진 아내는 폐암,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30%나 증가한다. 담배를 피우는 아버지를 가진 아이는 감기가 거릴 확률이 3배나 증가하고, 합병증으로 입원할 확률도 2~3배 증가한다. 폐기능이 떨어지고, 천식도 악화된다. 담배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백해무익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끊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잘 이용하자.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다. 기관지염, 십이지장궤양, 고혈압 등 담배와 관련이 있는 병을 앓게 되면 이때는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다.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셋째, 결심을 굳게 하고 금연일을 정하자. 흡연이 약물중독이기는 하지만 굳은 결심만 있으면 금연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결심을 하면 즉시 '금연일(담배를 끊는 날)'을 정하자. 금연일은 대개 7~10일 후로 잡는 것이 좋다. 너무 뒤로 잡으면 마음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많은 때는 피하는 것이 좋다. 시험을 앞두고 금연일을 잡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넷째, 담배를 끊는다는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공포하자. 담배를 끊는 데는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가족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금연에 실패하면 창피할까 봐 주위에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다. 혹, 금연을 방해하는 몰지각한 동료나 친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도 있다. 하나 알아 둘 것은 한 번에 담배를 끊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는 사실이다. 금연에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은 여러 번에 걸친 실패를 경험한 재수생이다.

다섯째, 금연을 위한 환경조성도 필요하다. 담배를 생각나게 하는 물건, 즉 재떨이, 담배, 라이터 등을 아예 버리는 것이 좋다.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라이터를 떼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담배를 끊은 후에는 담배를 피울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피하여야 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회식이다. 이 때는 술을 먹게 되고,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금연 후 2~3 주간은 이런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다.

여섯째, 금단증상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금단증상이란 담배를 끊은 후 나타나는 불안, 초조, 집중력장애, 불면 등의 증상을 말한다. 이런 증상은 중독과 비례하여 심해진다. 금단증상은 금연 후 3~4일에 가장 심해지고 2~3주 후면 없어진다. 그러니 이 기간 동안만 이런 증상을 잘 조절하면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운동을 하는 것이다.

은단 씹기, 무가당 껌 씹기, 찬 물 마시기, 양치질 등도 도움이 된다. 다만 칼로리가 많은 음식은 비만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일곱째, 약물사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금단 증상이 심한 경우에 이를 완화시켜 주는 약물로 피부에 붙이는 니코틴 패취와 니코틴 껌 두 종류가 있다.

이 약물은 적은 양의 니코틴을 공급해 주어서 금단 증상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 약물에 대한 과신은 금물이다.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담배를 끊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약간 도와 줄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심장질환, 임신 등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건강샘, 조홍준 (울산의대 서울중앙병원 가정의학과) >

## // 담배 연기 자욱한 학교 //

지난 5월 중순 인천의 한 여상 1학년 교실. 수업이 끝난 뒤 학생 서넛 명이 교실 창가에 모여 앉아 담배를 피웠다. 담배연기가 교실 창문을 통해 흘러 나갔지만 지도하는 교사는 없었다. 이 학교 1학년 김모양(16)은 '교실에서 선생님 눈을 피해 담배를 피우는 풍경은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다'고 말했다.

서울 J고 생활지도주임 김모 교사(45)는 '한마디로 통제가 안 된다'며 '심지어 복도 계단에서도 담배를 피워대는 통에 선생님들이 연기 나는 곳을 피해 다니는 경우가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인천 M여상 최모 교사(23여)는 '수업 중에 화장실에 간다며 나갔다 오는 학생들마다 입에서 담배 냄새가 풍긴다'며 '한 시간도 못 참을 만큼 담배에 깊이 중독된 여학생들이 많다'고 실토했다.

최근 서울의 한 여고에서 2학년을 상대로 불시 소지품 검사를 한 결과 3분의 1 정도의 학생이 담배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측은 학생들의 흡연에 사실상 두 손을 든 상태다. 교내 흡연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학생이 워낙 많다보니 과거처럼 정학이나 퇴학 등 중징계도 불가능하다. 서울의 한 여고에서는 흡연 적발자 명단을 한 달 동안 교무실 복도에 게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고교는 물론 중학교에서도 흡연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 G중학교는 흡연적발 학생에 대해 청소 등 학내봉사활동을 시키고 있지만 흡연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서울의 일부 중고교에서는 금연법과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문을 화장실에 붙였지만 효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학교 밖으로 나오면 최소한의 교사들의 지도조차 없는 청소년 흡연 천국이다. 30일 밤 강남의 한 PC방에는 컴퓨터에 몰두해 있는 10대 남녀의 절반 이상이 입에 담배를 물고 있었다. 회사원 이모씨(30)는 '이곳에 오는 청소년 가운데 절반은 흡연자'라며 '대낮에 교복차림의 학생들이 거리낌없이 담배를 피우는데도 누구 하나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등 사회환경도 문제다. 만 19세 이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문화된 지 오래다. 10대들은 담배 가게나 커피숍에서 돈만 주면 얼마든지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 학교 주변 문방구나 분식점 중에는 학생들의 가벼운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200원에 담배 1개비씩 파는 곳도 있다.

전문가 연구결과 청소년기의 흡연은 어른들의 흡연보다 건강에 더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들은 세포 조직 장기가 성숙하는 과정인 16세 이하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20세 이후 피우는 경우보다 각종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3배 이상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소년 금연학교를 운영하는 우리누리 청소년회 양해규 간사는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담배가 무서운 속도로 우리 청소년들의 육체와 정신을 갉아먹고 있다'며 '청소년 흡연이 아시아 태평양 권에서 1위로 나온 만큼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 주부예찬(主婦禮讚)』

백설처럼 곱고도 하얀 손길이 머무는 자리마다 정이 물씬 배어 있다. 그 정은 사랑이 되어 식구들의 처진 어깨를 토닥토닥 다독거리 준다. 주부가 서 있는 자리는 행복이 머문다. 삶의 더께가 집안 구석구석에 진드기처럼 달라붙어 있다가도 어여쁜 주부의 발길이 옮겨지면 어느덧 냄새나는 찌꺼기들은 저 멀리 사라진다. 비록 반질반질 광은 나지 않지만 코끝에 느껴지는 깨끗함이 가슴으로 전해진다.

꿈 많은 소녀시절도 지나고, 연푸른 빛을 머금은 오월 초의 신록에 눈빛이 반짝거리던 아가씨 시절도 지났다. 백마를 탄 왕자를 연모하다가 평범한 사내를 만나 결혼하여 한 가정의 안주인 주부로 눌러 앉았지만 여전히 청순함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남아 있다. 때때로 비쳐지는 주부의 순진함과 순수함은 여자의 매력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닐까?

달콤한 신혼은 어느덧 바람결에 날아가고, 남편 비위 맞추고 아이들 치다꺼리하느라 보면 중년의 문턱에 가까워진다. 벌써 중년인가? 문득 뒤돌아본 삶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부대끼는 일에 시달렸던 자신을 보는 순간 자기 연민에 빠져 우울해지며 가슴 한 구석이 땡 뚫린 듯한 공허감으로 시려진다. 그래도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거울을 본다. 눈가에 질게 패인 주름을 가리고 얼굴에 남아 있는 거무스름한 흔적들을 분과 크림으로 말끔히 지운다. 학교에서 돌아 온 아이들에게서 책가방을 받아 주고, 늦은 밤 피곤함이 찌든 얼굴로 귀가한 남편을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띄우며 맞이한다. 자기 희생이 컸던 만큼 자기를 위한 자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 작은 자리로 인하여 인생의 의미를 크게 찾는 주부의 모습에 그 누가 감동하지 않으리요!

쥐꼬리만한 월급을 가지고도 꼼꼼히 가계부를 쓰며 여유 있게 재정을 꾸려 가는 것을 보면 그 지혜와 알뜰함에 감탄이 절로 흐른다. 남편 입맛 그리고 아이들 입맛을 훤히 알고 식탁을 차릴 땐 거의 예술에 가깝다. 감자 한 알, 무 한 개, 오징어 한 마리가 주부의 손끝에서 산해진미로 거듭난다. 외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주부에 의해 만들어진 음식에 비하리요! 매일 식탁에 오르는 음식 종류가 거기에서 거기라 할지라도 그 맛과 향기는 미각을 끊임없이 자극한다. 역시 음식 맛은 정성이야. 주부가 어떤 음식에 정성 들이는 것을 값으로 매긴다면 과연 얼마나 할까?

왜 갈등이 없으리요? 주부로 겪는 고민과 아픔 그리고 상실감이 있다. 결혼 생활은 낭만이 아니라 실제이기에 남편과의 성격 혹은 의견 차이로 이따금씩 부딪힌다. 이해와 관용을 바라지만 오해를 하는 남편을 보면 속이 상하고 이방인처럼 외로움을 느낀다. 시댁과의 충돌에서 남편이 뒷집치고 물러서 있으면 원망이 목구멍까지 차 오른다.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슬며시 비교의식에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기도 한다. 그래도 파아란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을 보며 희망을 가진다. 비온 뒤에 앞동산 너머로 아롱진 열은 무지개를 보며 두근거리는 가슴을 살포시 어루만진다. 인내에는 값진 열매가 따르리라. 주부는 잘 참는다. 속으로 삭히며 과거를 잊는다. 그래서 처녀보다는 주부가 마음이 넓고 포근하다. 세월의 흐름에 얽혀진 사건들이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주부의 세계에서 아름답게 승화된 것이다.

주부는 살갑다. 외적 미모나 치장에서 풍기는 멋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멋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다. 가정이라는 좁은 울타리에서 갖은 풍상을 겪으며 다듬어진 우아함이 있다. 천박하지 않기에 가까이 가서 느낄수록 매력적이다. 삶의 지혜가 배어 있는 진정한 아내의 그리고 엄마의 매력이 있다.

# 새가족 소개

## 이명란 성도

♣ 순복음중앙교회에 오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허 선영 권찬님 가정이 이사 나가는 집으로 이사오셨는데, 신앙생활 했다는 말씀에 권연하였고, 말씀을 듣고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명란 성도님은 남편 '오 찬규' 선생님과 아들 '오 한석' 군과 6월이면 태어날 아이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고 가는 길은 멀지만 말씀과 믿음으로 정착하여

성도님 삶과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음이 반석위에 설 수 있기를 바라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등록일 : 2001년 4월 22일

주소: 당진군 송악면 반촌리 명지아파트 105동 102호

전화: 356-9755

## 허월석 성도

♣ 순복음중앙교회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허 월석 성도님은 허 선영 권찬님의 친언니로서 허 권찬님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에 이끌리어 주님의 전에 오셨다고 합니다.

철없던 시절 주님을 인정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며 늘 동행하길 원하신다는 허 월석 성도님!!

주님의 진리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제자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등록일 : 2001년 4월 8일

주소: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544-6호

전화: 357-7749



### 새로 믿는 성도가 알아야 할 것들

1. 예배생활을 잘하는 것.
2.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
3. 세상사람들의 죄된 모습을 버리며 사는 것.
4. 교회를 사랑하고 자주 출입하는 것.
5.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

## 사진으로 보는 성지순례

### 18. 베드로 갈리간투 교회



시온산에서 최후의 만찬을 마친 예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기도하신 시온산 건너 감람산 아래턱 깃세마네에 이르러 기도하실 때, 대제사장 가야바(Caiaphas)가 보낸 병사들은 칼과 몽둥이로 예수를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를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갔다. (마 26:57). 이 집은 시온산에 위치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그날 밤이 새도록 이곳 감옥에서 심문과 고문을 당하였으며(cf. 시 88편),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하자 로마의 총독에게 넘겨주기에 이르렀다.

잡혀와 심문받으시던 예수를 뒤에서 따라온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리라"(마 26:34)는 예수의 예언대로 그를 부인하게 된 곳도 바로 이곳이었다 (마 26:57, 막 14:71, 눅 22:60, 요 28:27). 닭이 우는 시간이 되어서야 베드로는 깨달음을 얻고 통곡하기에 이르렀다(마 26:75), 그래서 1931년에 세워진 이곳의 기념교회를 '갈리간투'(Gallicantu, 닭이 운다)라 부르고 있다.



이곳에는 시온산으로부터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가는 돌 계단이 있어 예수께서 깃세마네에서 체포 당하신 후 이곳으로 끌려오시던 길임을 알 수 있으며, 대제사장 관저 지하에 만들어진 감옥으로 사용된 깊은 웅덩이에는 죄수들을 쇠사슬로 묶어 놓았던 흔적이 역력히 볼 수 있다. 이 교회는 1931년 카톨릭에 의해 세워졌으며, 교회의 지하층에는 예수님 당시의 감옥으로 추정, 발굴된 감옥을 보존하고 있다. 교회 뜰에서는 마카비 시대까지 소급되는 돌계단을 발굴하여 보존하고 있다.

### 19. 베데스다 연못



예루살렘의 동쪽 성문 중의 하나인 스테반 문(일명 사자문)에서 성 내부 쪽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이 연못은 예수님 당시에는 성의 북쪽벽 밖 가까운 곳이었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양문 (Sheep Gate, 느 3:1; 요 5:2) 곁에 위치하고 있다.

이 연못은 본래 기원전 2세기 시몬이 대제사장으로 있던 때에 세워진 길이 100~110m, 너비 62~80m, 그리고 깊이 7~8 m의 두 개의 쌍둥이 연못으로서 성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종교적, 의학적 치료를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이곳은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환자들이 늘 집합되는 장소였고, 예수께서 38년된 병자를 고쳐주신 장소로서 성스러운 성지로 지켜져 오는 곳이다(요 5:2~9), 히브리어의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House of Mercy)이라는 뜻이다.

이 연못은 수백년 동안에 흙으로 덮여져 있던 곳이 1888년에 들어서 발굴되었다. 이 연못은 그 길이가 105 m, 폭이 60 m, 그 깊이가 7.5 m가 되는 직사각형 모양에 네 개의 회랑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서, 그 측면은 다섯 개의 회랑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로써 요한복음의 '다섯 개의 행각'(요 5:2)이라는 말이 입증되는 셈이다. 이 연못 중의 하나가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깨끗이 씻겨서 들어가던 곳이다.

### 20. 시온산



예루살렘 남서쪽 해발 765 m 의 언덕에 자리잡고 있는 시온산은 사방 어디에서 보아도 잘 보이고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히브리어 'Zion'의 어원에 관하여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다만 유사 파생어로 '바위'(rock), '산성'(stronghold Zion), 혹은 '건조한 곳'(dry place) 등을 의미한다. 구약성경에서 처음 사용되는 곳은 예루살렘의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여브스족이 머물던 "시온산성을 다윗이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City of David, 삼하 5:7, 왕상 8:1) 일컬어졌다. 지형적인 의미에서 '시온'과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의 산이 각각 구별되기도 하였다(미 3:12).

그러나 시온은 넓은 의미에서 예루살렘 전체를 지칭하기도 하였으며(사 2:3, 33:14, 요엘 3:5), '시온의 딸'(사 1:8, 30:16, 아 1:5),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사 10:24, 51:11), '유대 백성'(사 51:16, 59:20), '성전산', '시온에 거하는 하나님'(요 4:17, 시 20:3) 등 많은 파생어를 낳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시온산'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징이라 말할 수 있다.

## 세계적인 인기 운동, 줄넘기



줄넘기는 간단한 도구를 가지고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운동이다. 특히, 줄넘기는 유산소성 운동으로서 조깅, 사이클, 에어로빅 운동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심폐지구력, 근력, 유연성, 순발력, 지구력 등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우리의 신체를 단련하는 데 매우 좋은 운동이다.

줄넘기는 발바닥의 앞부분으로 뛰고 발뒤꿈치를 붙이지 않으며 착지 시에는 무릎을 가볍게 굽히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그리고 무리하게 높이 뛰거나 크게 뛰지 않아야 하며 리듬감 있게 운동을 하고 싶으면 음악을 틀고 박자에 맞추도록 하는 것이 좋다. 바닥은 약간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마루 바닥이 좋다.

비만하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는 팔과 다리의 협응력이 떨어져 줄넘기를 배우는 속도가 늦어진다. 그렇다고 줄넘기를 포기하지 말고 줄을 이용하여 동그랴게 돌리거나 8자로 돌리기, 양손으로 줄 잡아당기기 등을 먼저 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줄넘기의 쉬운 동작부터 시작하도록 한다.

줄넘기는 특성상 발끝으로 뛰어야 하므로 발에 오는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화를 신는 것이 중요하다. 최대한 할 수 있는 횟수를 3등분한 정도의 횟수를 반복해서 하면 과다한 운동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

## 워킹이 다이어트에 최적인 이유



인간의 근육에는 적색근육(붉은 빛을 띠는 근육, 이하 '적근'이라 한다)과 백색근육(흰빛을 띠는 근육, 이하 '백근'이라 한다)이 있다.

적근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근육으로서 워킹을 비롯한 유산소운동에는 이 근육이 사용된다. 반면 백근은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하며 100m 달리기와 같이 순간적인 운동에 이 근육이 사용된다.

워킹에 의하여 연소되는 지방 그 자체의 양은 결코 많지는 않지만 적근은 유산소운동에 의해 틀림없이 활발해진다. 근육이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지방은 연소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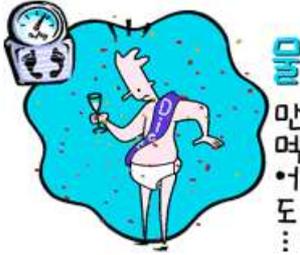
미국의 운동생리학자 폴락을 중심으로 한 연구팀은 뛰기, 자전거 타기, 워킹의 세 가지 트레이닝을 각각 했을 때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비교하였다. 이중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워킹이 가장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우주비행사는 무중력상태의 우주에서 돌아오면 뼈와 근육의 양은 감소하고 체지방이 축적된다고 한다. 인간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뼈나 근육의 양이 확실히 감소하고 지방이 축적된다고 한다.

인간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뼈나 근육의 양이 확실히 감소하고 지방이 축적되기 쉬운 몸이 된다. 비

만을 해소하기 위한 다이어트에는 물론 식사요법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운동요법을 행하지 않으면 건강한 다이어트에는 이르지 못한다.

## 다이어트 물로 보지마



물을 마시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 하루에 6~8컵 마시면 효과가 크다.

물은 칼로리가 없지만 물의 신진대사를 위해서는 상당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므로 물로 다이어트하는 방법이 인기를 끌고 있다.

물은 체내 노폐물을 정화시켜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꼭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하루 최소 6~8컵 정도는 마시는 것이 좋다.

### <방법>

- ▲ 기상후 1~2컵(200~400ml) ▲아침에 1컵
- ▲ 오전중 2컵(체조를 함께 하면 좋다) ▲점심에 1컵
- ▲ 오후중 2~3컵 ▲저녁에 1컵을 마신다.

### <요령과 주의점>

- ▲ 생수를 마셔야 하지만 보리차든 레몬차든 자신에게 맞는 것이면 어떤 것도 상관없다.
- ▲ 가능하면 식사전과 공복에 수시로 마신다. 배가 비었을 때 마시면 위액을 희석시키고 식욕을 떨어뜨리므로 과식을 피할 수 있다.
- ▲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에 마시는 것이 신진대사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 ▲ 식사 중에는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다. 소화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
- ▲ 운동 전후에는 평소 마시는 양보다 1~2컵 더 마시는 것이 좋다.
- ▲ 너무 뜨겁거나 찬물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 ▲ 물을 많이 마시는 대신 염분 섭취를 줄인다.  
손발이 잘 붓는 사람은 특히 주의한다.



## 만성피로증후군



머리가 무겁다, 온 몸이 나른하다, 하품이 나고 머리가 멍하다, 동작이 둔하고 자꾸만 눕고 싶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우리 주변에는 이 같은 피로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피로는 그 정도에 따라 하루 밤 휴식하면 회복되는 보통 피로, 다음날까지 계속되는 과로, 피로가 축적돼 단기간 휴식으로 회복이 어려운 만성피로 등으로 나눈다.

만성피로증후군의 원인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단지 임상적으로 활동할수록 심해지는 피로감, 신경계 증상 등을 특징으로 하는 병(?)이라고 할 수 있다.

만성피로증후군은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활동력이 5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목의 아픔, 기억력 감퇴, 관절통, 두통, 임파절 통증 등의 증상 가운데 4개 이상이 겹치는 경우로 정의된다.

부신피질호르몬제나 영양제를 투여해도 별 효과가 없다. 한방에서는 장부기능 약화와 원기·기혈 부족으로 인한 허로(虛勞), 과도한 정신·육체노동 및 부부관계에 따른 노권상(勞倦傷) 등이 만성피로증후군에 해당한다.

치료는 약물요법과 함께 환경적 조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물론 피로를 느낄 때마다 곧바로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해줘야 만성피로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다. 한방에선 이 질환을 소화기가 약해 영양분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비위허약, 기의 흐름을 주관하는 폐와 신장의 기능이 좋지 못한 폐신양허, 무절제한 생활과 정신적인 과로 등이 원인이다.

바람 추위 더위 습기 등도 영향을 미친다. 즉 여름의 무더위와 높은 습도는 사람을 빨리 지치게 하고 땀을 많이 나게 해 몸 안의 진액과 기를 소모시킨다.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은 피로회복제나 술로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법은 못 된다. 피로회복을 위해서는 적당한 수면, 고른 영양섭취, 가벼운 운동이나 레크리에이션, 긍정적인 사고와 명량한 마음가짐 등이 필요하다.

그래도 만성적으로 피로가 쌓이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 피로는 선천적으로 기운이 부족한 사람에게 흔하다. 따라서 양기나 진액을 보강하고 담음을 제거하는 한약 처방이 필요하다. 척추 양쪽의 경혈을 위에서 아래로 훑듯이 눌러주는 지압도 도움이 된다.

◆ 현대인들에게 보편적처럼 나타나고 있으며 심각한 증후군입니다.  
다음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감사의 작은쪽지】

"아... 배고파, 엄마, 뭐 먹을 것 좀 없어요?"

오늘도 밤 10시가 넘어서야 학교에서 돌아온 지연이는 책가방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어 찻히며 수선을 피웠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먹으면 뭐든지 살고 간덴다. 좀 참지 그러니?"

내 말은 들은 척도 안하고 지연이는 결국 커다란 양푼에 밥을 한가득 담아 김치와 고추장을 넣고 비비기 시작했다.

참기름에 김 부스러기까지 없어 완성된 비빔밥은 보기만 해도 침이 넘어 갈 정도로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딸아이의 늦은 만찬이 계속된 지 벌써 두 달째이다.

전에는 매일 두 개씩 가져가는 도시락도 남겨와서 걱정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도시락을 싹씩 비워 오는가 싶더니 급기야 매일 밤, 한 끼의 식사를 더 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이어트를 한다며 오후 여섯 시 이후에는 사과 한 조각 안 먹으려 했던 아이였기에 그런 변화가 더욱 심상치 않게 느껴졌다.

그만큼 공부가 고된 것일까?

갓 피어난 꽃잎처럼 한창 싱그러워야 할 나이에 밤늦도록 책상 앞에 앉아 딱딱한 수학공식과 지겨운 영어단어를 외우고 있을 딸아이가 애처로워 가슴 한 구석에 뜨거운 것이 밀려들었다.

"엄마, 왜 그래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연이가 걱정스럽게 내 얼굴을 살피고 있었다.

"아, 아니야, 잠시 네 생각을 했어."

나는 얼른 일어나며 딸아이의 가방에서 빈 도시락을 꺼내 들었다.

그런데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도시락의 뚜껑을 여는 순간, 작은 쪽지 하나가 툭 떨어지는 게 아닌가.

"어머니, 고맙습니다." 쪽지 겉면에 쓰여져 있는 쪽쪽 눌러 쓴 글씨... 분명 딸애의 것은 아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쪽지를 펼쳐 보았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지연이 친구인 희정입니다. 그동안 제 도시락까지 싸 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편지로 대신하는 걸 용서해 주세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많이 상하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저도 언젠가는 나누면서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그제서야 지연이가 하루에 네 끼를 먹으면서도 오히려 뉘그러져 가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사랑스런 내 딸은...

학교에서 수학공식과 영어단어 뿐만 아니라 인생의 더 중요한 것들을 배우고 있었던 것이다.



- 너희도 이와같이 하라 -

## ◎ 6월

1. 성경쓰기 - 6월 1일~30일, 호세아 1장~요나 4장
2. 사진경연대회 시상식 / 6월 3일, 주일오전예배 후
3. 마리아여성교회 헌신예배 - 6월 3일 오후 8시
4. 영적성장세미나 - 6월 14일, 오전 11시 / 주제 : 신앙과 가정
5. 에스더여성교회 헌신예배 - 6월 17일, 오후 8시
6. 침례문답 - 6월 24일, 오후 1시
7. 구역장 단합대회 - 6월 26일, 오후 8시
8. 제직세미나 - 6월 28일, 오전 11시 / 주제 : 태산을 넘어가리라

◎ 교회공사 / 6월 초순경에 보수공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 내용 ; 지붕덮기, 하수도보수, 환경미화,

## 시사상식

### - 친 고 죄 -

친고죄?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

범죄의 성격상 형사소추를 할 경우 피해자의 명예훼손이나 기타 불이익을 가져오게 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범죄가 경미할 경우, 피해자의 처분에 의존하여 처벌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이다.

강간죄, 간통죄, 특정 친족간의 재산범죄, 모욕죄, 혼인방자간음죄, 저작권 침해사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친고죄에는 범죄의 종류와 관계가 있는 '절대적 친고죄'와 범죄인과 관계가 있는 '상대적 친고죄'가 있다. 절대적 친고죄는 강간죄, 간통죄, 강제추행, 혼인방자간음죄 등이고, 상대적 친고죄는 가족간에 발생하는 재산범죄이다.

대부분의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거나 신고해야하는 친고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특수강간, 친족간의 강간 등의 범죄는 친고죄로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

소를 할 수 없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상의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또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1심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이를 '반의사불벌죄'라한다.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이 그것이다.

## "우리를 사랑할 자가 있는 가정"

C. 스와인

가정은 단순히 사각형 벽으로 둘러싸인 곳이 아닙니다.

그림이 걸려 있고, 보기 좋게 꾸며져 있을지라도.

가정은 애정이 있는 곳이라고 불립니다.

그 애정을 모아 짐을 세우는 곳입니다.

가정! 우리들 머리 위에는 하늘을 나는

착한 비둘기를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가정은 사랑할 자가 있는 곳!

가정은 우리를 사랑할 자가 있는 곳!

가정은 단순히 지붕과 방으로만 되어 있지 않나니.

어떤 것이든 애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 애정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랍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속삭임이 있는 곳입니다.

아무도 만나 주지 않고,

아무도 환영하는 자 없고,

아무도 인사하는 자 없는 곳이라면 어찌 집이라고 할까요?

가정은 즐거운, 오직 즐거운 곳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고 우리를 사랑할 자가 있는 곳이기예.





**대회역사**

● 탄생배경

월드컵축구대회는 단일종목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행사이다. 월드컵은 20세기 초 올림픽운동, 특히 1920년 올림픽대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920년 앤트워프 올림픽대회의 축구경기에는 남미, 아시아 및 아프리카를 포함한 14개국 이 참가했고, 1928년 암스텔담 올림픽에는 17개국이 참가했으며, 이때까지 FIFA에서 주관하는 축구대회는 없었다.

따라서 1920년 5월 26일 FIFA는 독자적인 축구대회 개최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월드컵축구대회가 탄생하였다. Jules Rimet회장은 1926년 FIFA 총회에서 'FIFA 회원국 축구협회가 파견하는 모든 국가대표팀이 참가할 수 있는 제1회 월드컵축구대회를 개최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1930년 제1회 월드컵축구대회의 개최권은 우루과이에 주어졌다. 유럽의 전후복구사업과 대공황 사이의 기간에 열린 이 대회는 개최

2개월을 앞두고서도 참가신청을 한 유럽국가는 한 나라도 없었다. Jules Rimet 회장의 적극적인 교섭의 결과 유럽의 4올림픽 중간 연도를 택해 4년에 한 번씩 개최기로 한 월드컵은 프랑스에서 열린 제3회(1938년) 대회 이후 12년 동안 전쟁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전쟁의 종식과 함께 1950년 제4회 대회가 브라질에서 다시 개최되었다.

● 월드컵 트로피의 유래



월드컵대회 역사를 통하여 2개의 월드컵트로피가 있었는데, 첫 번째 트로피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FIFA가 1930년에 제1회 월드컵축구대회를 개최기로 결정한 후, 프랑스 조각가인 Abel LaFleur는 우승팀에게 시상할 순금트로피를 제작했다. 이 트로피는 준보석으로 된 받침대 위에 승리의 여신이 팔을 뻗어 팔각형 컵을 받들고 있는 조각품이었다.

이 트로피는 월드컵축구대회의 창시자인 Jules Rimet 회장을 기리어 줄리메컵으로 불려지고 있지만 제2차세계대전 전에 열린 제3회의 대회(1930, 1934,

1938)때에는 그냥 월드컵으로만 불리웠다. 이 트로피는 1970년 대회에서 브라질이 우승함으로써 당시 유일한 3회 우승국인 브라질이 영원히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 트로피는 제2차대전중 침략군을 피해 이태리의 한 가옥의 침대 밑에 숨겨지기도 했으며, 1966년 영국에서 열린 월드컵대회 직전에 일반에게 전시되던 중 도난 당하기도 했다. 영국경시청이 이 트로피를 찾아 나섰지만 실패했다. 결국 이 트로피는 "픽클즈"라 불리는 잡종견 한 마리가 교외의 쓰레기통에서 찾아냈다.



이 트로피는 1983년 브라질에서 다시 도둑을 맞았는데, 이 때에는 도둑들이 녹여 없앤 것으로 추측된다. 브라질축구협회는 복제품을 만들어 대신 보관하고 있다.

두 번째의 월드컵 트로피는 FIFA가 53개나 되는 디자인중에서 선정하여 1974년 월드컵 축구대회에 내놓은 것이다.

이태리조각가인 Silvio Gazzaniga가 18캐럿 순금으로 제작한 것인데, 이 조각가의 설명에 따르면, "바닥에서 나선형으로 솟아오르는 선들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데, 이는 2명의 선수가 감격적인 우승의 순간을 역동적으로 표현" 하고 있는 것이다.

# 총정

# 예배 및 각종 모임 안내

**목사**

1. 설교 / 5월 6일, 남원 중신교회
2. 교단 중회 참석 / 5월 21일~24일  
장소 : 여의도순복음교회
3. 교역자 가정 조문 / 5월 21~22일  
하용인목사님 모친 소천
4. 목회자 세미나 /  
6월 4일~7일, 양수리 수양관
5. 심방 / 외지거주 청년  
6월 1일, 오전 9시~오후 7시  
장소 : 청주, 장호원

**교인**

1. 취업 / 장명희 권찰 : 남산화원  
☎ 355-4575
2. 이사 / 손현숙권찰 가정  
송산면 매곡리 330번지 세안APT  
1동 306호 ☎ 353-0982
3. 등록 / 이명란성도  
송악면 반촌리 명지APT  
105동 102호 ☎ 356-9755  
전도 - 허선영권찰

**교회**

1. 설치 / 성전 커튼 교체
2. 봄여행 / 5월 14~15일(1박2일)  
장소 : 청평-가평-춘천-화진포-강릉-속사-여주
3. 전도 / 제직회 전도부 주관  
5월 31일, 27명 참석  
당진읍내 전지역
4. 순복음Life지 150부 발행 /  
병의원, 약국, 기업, 은행,  
관공서 보급
5. 여름성경학교 교사양습회 / 교사회  
일시 : 5월 28~30일,  
장소 :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상	요일	모임	시간	비고	
예배	장년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예정	
			2부 예배	오전 11시		
		" (중요)	저녁 예배	오후 7:00(11월~3월) 오후 8:00(4월~10월)		
			저녁 예배			
		수요	아침 예배	오전 11시		
	금요	구역 예배	각 가정에서			
	주교	주일	오전 예배	오전 9시		
		"	오후 예배	오후 3시		
	학생	토요	성경공부	오후 5시	문화활동 있음	
		주일	정기 예배	오후 5시		
청년	토요	정기 예배	오후 7시			
	장년	금요	철야기도회	밤 9시		
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시			
교육	장년	목요	초신자양육	오전 11시	2회(사무실)	
		목요	새신자훈련	오후 1시	1회(사무실)	
		화요	평신도훈련	오후 8시	조직신학	
		목요	평신도훈련	오전 11시		
		화요	구역장공과	오전 6시		
		화요	제자훈련(초급)	오후 9시		
		목요	제자훈련(중급)	오전 9:30		
		목요	제자훈련(고급)	오전 9:30		
		주중	일대일양육	정한시간	가정, 직장	
		목요	영적성장세미나	오전 11시	격월	
수요	교사대학	저녁예배후	현직 교사			
모임	성가	주일	연 습	오전 10시	오후 12:30	
	토요	연 습	오후 5시, 8시			
활동	울동선교단	수요	1기(레마)	오전 10시	연습	
		수요	2기(샬롬)	오후 1시		
		토요	3기(셀라)	오후 5시		
	찬양선교단		연 습	매주 화,목	오후 7시	
	컴퓨터	월요	컴퓨터교육 및 작업	오후 5시	컴퓨터팀	
		화~토	컴퓨터교육	오전 10시~오후 9시	PC방 운영 교육생	
기도팀	월~토	1시팀	오후 1시	개인기도		
		3시팀	오후 3시	중보기도		
		9시팀	오후 9시	교회기도		
월요	문서발간위원회	오전 11시	순복음Life지			
월요	행정팀	오전 10시	주보, 엽서 등			

◆ 「순복음 Life」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동과 사명감으로 참여해 주실 분은 연락바랍니다.  
☎ 표지 1면을 참고 은행계좌번호 481076-56-044087(농협) 예금주 김미진

▲ 신나는 퍼즐 ▲

<가로 열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밧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계시록을 쓴 사도는?
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OO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 3:23).
5. 주님이 몸과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을 기념하는 의식은?
7. 다윗의 범죄를 책망한 선지자는?(삼하 12장)
9. 부활주일로부터 1주일 전 주일을 무슨 주일이라 하는가?
10. 구원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을 받는 자는?(히 1:14)
12.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여 모세를 원망하는 곳(출 15:23).
13. 대저 물이 OO를 덮음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합 2:14).
15.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곳은?(요 2장)
16. '보아너게'의 뜻은?(막 3:17).

<세로 열쇠>

2. 하나님께 기도하여 사무엘을 낳았던 여인은?(삼상 1:10~13)
4. 사단도 자기를 OO의 천사로 가장하니(고후 11:14)
6. '할렐루야'의 뜻은 "여호와를 OO하라" 이다.
8. 기독교에서는 일요일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 하는가?
9. 세상의 끝, 맨 나중의 끝이라고도 함.
11.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 했는데, 이때 예수님께 와서 경배 드린 사람은 OOOO인이었다(눅 17:11~19).
13. 안디옥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안수 받은 선교사는 누구인가?(행 13:1~3)
14.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사람들은?(행 17:11).

- ♣ 누구든지 정답을 작성하여 6월 17일까지 제출하면 추첨하여 시상함.
- ♣ 1. 전자우편 : hagape@netsgo.com (교회), kmjagape@borahome.net (위원장)
- 2. 일반우편 : 충남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162-1 (우) 343-800 순복음중앙교회 문서발간위원회 앞

☞ 제5호 당첨자 시상 - 1등 : 허선영권찰, 2등 : 고승희집사  
참가상 : 이정순집사, 강난순권사, 원재옥집사, 허월석성도, 김순미집사, 김종숙권사

▶ 교회를 찾아오시는 길 ◀

▲ 문서발간위원회 ▲

- 위원장 : 김미진 집사
- 서 기 : 이종희 성도
- 회 계 : 구옥순 성도
- 위 원 : 박순남 집사  
손현숙 권찰  
윤희자 전도사  
이영주 성도
- 편 집 : 한승권 목사
- 도우미 : 류정훈 성도  
김진숙 선생

